
17/06/11(주) 주일예배 / 제목 :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행 19:1~7) p.221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년 성령강림주일을 지키면서 성령님과 친밀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강림주일(Whitsunday)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절기에 오셨다고 해서 오순절(Pentecost)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그 가운데 제3위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3등이란 뜻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위도 동등하고, 본질도 동일합니다. 단지 구별하기 위해서 성부 제1위, 성자 제2위, 성령 제3위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 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保惠師)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애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함께하시면서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元)보혜사이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즉 제2의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오심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곧 승천 후 1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행2:1~4).

본론 / 그런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 고 말하

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 행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반쪽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고, 또 달라져 본들 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이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은 겉보기에 풍요롭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요원해져만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달라지더라도 더 나쁜 모습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겉포장이 달라져도 본질상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렘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고 했습니다. 그러한 본질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렘 13:23)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흑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나요? 불행하게도 작심 3일이란 말처럼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으로는 가능합니까? 물론 조금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겉만 약간 달라질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은 교육이나 지식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고학력 시대인데 이상하게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수준이 높아질수록 범죄지수도 높아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나 공권력으로는 가능할까요? 일시적으로는 악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이나 공권력도 인간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예로, 감옥에 죄수를 가둔다고 변화됩니까? 물론 개중에는 좋은 모습으로 교화되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못된 것을 배워갖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인간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한 쪽으로 변질되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징조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인간성 타락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딤후 3:1-4)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 /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앞으로 인간성은 더욱 악해져 가고, 그에 따라 인간은 점점 더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은 영영 변화될 수 없는 구제불능일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후 5:17)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

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딤후 3:5)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스 4:6)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나의 영이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자마자 (2절상)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고 물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질문을 괜히 해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뭔가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절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고 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지도 듣지도 못했으니 성령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3절상)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이들이 대답하기를 (3절하) “요한의 세례니라” 고 답변했습니다.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일러주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고 한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열린 것입니다. (6~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이런 일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핍박을 심하게 함으로 인해 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주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빌립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가르침과 이적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나가고 중풍병자들도 걷게 되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삶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많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보니까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에게 빌립을 통하여 분명히 이적이 나타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성령 받지를 못했음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도 성령받기를 안수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 8:14~17)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

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겉사람은 변했으나 속사람이 제대로 변하지 않는 성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을 성령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었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 목사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순종도, 충성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목사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확실히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가 어린아이 일지라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롬 8:9)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 했습니다. 또한 고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고전 12:3)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롬 8:9~12)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육신과 성령은 완전히 반대현상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옛 사람의 모습인 육신의 삶을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고 물었던 것입니다.

1977년 7월 13일, 뉴욕시에 25시간 동안의 정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1천만 명이나 되

는 뉴욕 시민이 암흑세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만 하루의 정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사건과 사고를 기록했습니다. 약 3천여 개의 가게가 강탈당하면서 20억 달러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4,800여 명의 약탈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200여명 부상을 입었습니다. 75개나 되는 장소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났으며, 2000여회나 되는 경보를 받은 소방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깃줄이 잠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혼란과 강탈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 같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정전사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서는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할 말을 귀뜸해 주십니다. 가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지금 하는 일마다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낭패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더라면 오늘 다시 성령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이 때문에 다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 16:7)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신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믿는 사람 각 사람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령께서 ‘탄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한다’ 는 말은 ‘좁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말은 마음이 무엇인가 짓눌려서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해서 숨을 쉬기도 힘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한숨이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마치 당신의 연약함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자식을 보고 탄식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보시며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로 아파하는 자식을 보고 탄식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마음아파할 때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시는 성령의 그 탄식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느낄 수 있으면 더 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탄식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를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를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강림주일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성령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늘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립니다.